전통을 잇는 악동(樂童)의 산실 스코틀랜드 왕립 예술원

영국 북부 글래스고에 자리한 스코틀랜드 왕립 예술원은 스코틀랜드 전통 음악의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신구(新舊)의 음악을 결합한 선율을 만들어 낼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다.

CARRYING THE TUNE

Traditional Scottish music has not only a rich history but also a vibrant future, thanks to the Royal Conservatoire of Scotland's Traditional Music program, where students learn to combine old and new in perfect harmony.

스코틀랜드 왕립 예술원
The Royal Conservatoire of Scotland

젊은 학생들의 활 끝에서 흘러나오는 바이올린 선율이 흥겨움에 발을 들썩이는 관객들 사이를 가득 채운다. 해마다 열리는 글래스고의 '켈틱 커넥션스' 음악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의 앙상블 연주곡은 경쾌한 음률로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가, 중간중간 음정이 흔들리기도 한다. 그 유명한 로열 콘서트홀 무대에 서서 긴장한 탓일까. 연주 박자와 방식이 매끄럽지 않은 건 그 때문이 아니다. 미국인 바이올린 연주자 메러디스 휴독은 이 모든 게 연주곡을 만들 때 의도한 계획의 일부이자 일종의 유머라고 말했다. "'서히홀가(街)'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근처에 위치한 상업 지구로 제가 사는 곳과도 가깝죠. 술에 얼큰하게 취한 사람들이 바와 재즈 클럽에서 쏟아져 나와 집으로 향하는 소리가 듣기 좋아서 쓴 곡이에요. 느린 곡조로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표현했답니다."

음악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휴독과 동료 연주자들이 다니는 스코틀랜드 왕립 예술원의 전통 음악 전공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전 세계 공연 예술 학교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이 유서 깊은 교육 기관은 스코틀랜드 최초의 공연 예술 학교로 1847년 '글래스고 애시니엄'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가 개교 연설을 하기도

A lively fiddle tune has the capacity crowd tapping their feet as the young players' bows flash through the air. The notes come in dazzlingly fast bursts, then seem to waver. It would be understandable if this student ensemble found it daunting to play in Glasgow's Royal Concert Hall at the city's annual Celtic Connections festival. But the change in tempo isn't a sign of nerves. It's all part of the plan and the humor, as American fiddle player Meredith Hudock explains: "This tune is called *Sauchiehall Street*, which is near here and near where I live. I wrote it because I get the pleasure of hearing the not-so-sober people falling out of bars and gigs and heading home. The staggering is what the slower passages represent."

Learning how to tell stories through music is a key part of the Traditional Music program at the Royal Conservatoire of Scotland (RCS), where Hudock and her bandmates are students. The historic institution is among the world's top five performing arts schools and was reputedly the first of its kind in Scotland when it opened (as

했다. 오늘날, 영국에서 전통 음악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 기관은 스코틀랜드 왕립 예술원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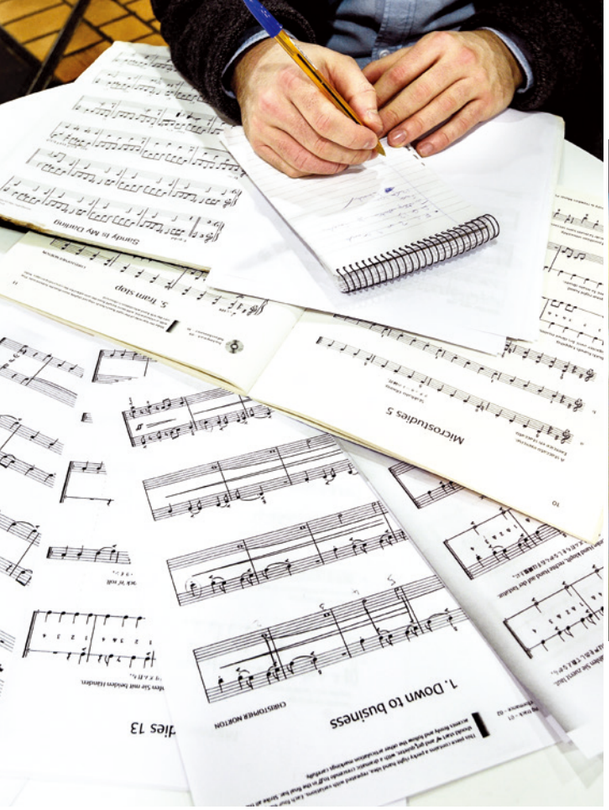
가장 유명한 스코틀랜드 악기라면 누구든 백파이프를 떠올리지 않을까. 홍콩에서 온 크리스 리는 어린 시절 경찰 악단의 가두 행진을 보면서 백파이프 연주를 처음 들었다고 한다. 그 소리에 깊이 매료된 리는 영국의 청소년 단체인 '소년단' 홍콩 지부에서 백파이프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스코틀랜드 왕립 예술원이 운영하는 4년제 백파이프 학위 과정을 수강 중이다. "오랫동안 이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꿈꿔 왔어요." 리의 말이다. 그는 졸업한 후에는 홍콩으로 돌아가 백파이프 강사로 일할 생각이다.

휴독 또한 스코틀랜드 왕립 예술원에서 2년간 스코틀랜드 음악 석사 과정을 마친 후에 미국에서 강사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올해 24세인 그녀는 세 살 때 클래식 바이올린 레슨을 받기 시작했지만, 10대 때 펜실베이니아 집 근처에서 열린 하일랜드 축제에 다녀온 뒤로 스코틀랜드 전통 바이올린의 매력에 빠져 진로를 바꿨다고 했다. 휴독은 "그 독특한 음색과 연주 방식, 그리고 공동체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배우며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하답니다. 켈틱 커넥션스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Hudock is also keen to teach in the US when she finishes the RCS's two-year master's in Scottish Music. Now 24, she was just three years old when she started classical violin lessons. A trip to a Highland games near her home in Pennsylvania as a teenager got her hooked on Scottish fiddle music, and she changed focus. "I just fell in love with the tunes, the playing style and the community," she says, adding, "The opportunities in this course are amazing. I love being onstage at Celtic Connections."

연습실에서 연주 전 예행 연습을 하는 학생들(왼쪽 페이지). 백파이프는 전통 음악 전공 과정에서 가르치는 악기 중 하나다(아래, 오른쪽).

Students in one of the Royal Conservatoire of Scotland's (RCS) rehearsal rooms (opposite). The bagpipe is just one of the instruments taught in the RCS's Traditional Music program (below, right).



곡을 검토하는 학생(왼쪽). 전통 하프를 가르치는 질리언 플리트우드(위). 학생들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와 협연할 기회를 갖는다(오른쪽 페이지).

A student reviews some scores (left). Gillian Fleetwood leads a traditional harp workshop (above). Students at RCS have the chance to collaborate with other young musicians across genres (opposite).

있다는 면에서 리허설 또한 좋은 경험"이라고 말했다.

왕립 예술원 전통 음악 전공 과정의 학과장을 맡은 조슈아 딕슨 교수는 휴독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처음 스코틀랜드 음악을 접했다고 한다. 10대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지역 밴드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본 이후 알래스카에서 파이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딕슨 교수는 학생들이 컨트리 발라드부터 저항곡에 이르기까지 전통 곡조 뒤에 숨은 문화적 이야기를 전달하는 법까지 배운 다음 전문 연주자이자 기능 보유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물론 숨은 이야기보다 음악 자체에 더 중점을 두는 신인 음악가의 활동 또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딕슨 교수는 파이프의 역사를 공부했으며, 동일한 주제를 다양하게 변주해서 연주하는 것이 특징인 고전적 파이프 연주 방식 '피브록'을 애버딘셔의 유명 연주자에게 사사했다. 전통 음악 전공 과정에 등록하려면 스코틀랜드 하프 등 한 가지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며, 면접과 오디션을 통과해야 한다. 차기 학년부터 학생들은 스코틀랜드 민요나 전통 음악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 중 하나인 파이프 밴드용 작은북 외에 드럼 세트 연주도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는 스코틀랜드 왕립 예술원이 취한 혁신 중 하나다. **글 줄리아 호턴 사진 콜린 해터즐리**

picking up the pipes in Alaska as a teenager after watching his father play in local bands. He expects students to become "expert performers and practitioners" by learning to tell the cultural stories behind trad tunes, from country ballads to protest songs. But he also supports emerging musicians who are increasingly focused "more on what's happening musically than the story behind the tune."

Dickson studied the history of piping and learned pibroch, an elaborate classical piping style, from a renowned Aberdeenshire player. But he has no formal qualifications in performance and stresses that students don't need them either. Instead, entry to the Traditional Music program is by interview and audition, with students specializing in one instrument, such as Scottish harp, or clarsach. Beginning with the next academic year, students will also be able to study the drum kit in a folk or traditional music setting, in addition to the pipe band snare drum, as the latest twist in the tale of traditional Scots music unfolds. **By Julia Horton Photographs by Colin Hattersley**

음악 너머에 켈틱 커넥션스 축제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은 학생의 기량을 키우기 위해 왕립 예술원이 제공하는 여러 특전 중 하나일 뿐이다. 유명 음악가나 작곡가에게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특별한 과제도 수행해야 한다.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학생들은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 스코틀랜드 노래 안에서 엿보이는 가정 폭력 같은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는 식이죠. 단지 춤추기 좋은 음악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사람들과 진실로 소통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니까요." 수상 경력이 있는 음악가이며, 강사로 활동 중인 로리 왓슨의 말이다.

작곡은 또 다른 주요 전공 분야로, 학생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곡을 만든다. 퍼스셔에서 온 스코틀랜드 파이프 전공의 학부생 존 듀는 텔레비전 방송과 다큐멘터리 작곡가가 되고 싶어 한다. 듀는 위스키를 찬미하는 곡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작곡을 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탐색하게 된다"며 "이곳에서는 악기를 이해함으로써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작곡을 가르치는 해미시 네이피어는 직업 음악가인 그도 곡을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면서 "제대로 곡을 쓰는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실전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BEHIND THE MUSIC Playing the festival is just one of the opportunities that help students develop. As well as taking one-on-one lessons with renowned musicians and composers, students also conduct research projects. Lori Watson, a lecturer and award-winning musician, says, "We have a seminar-style approach now, and students are choosing subjects that they're really engaging with. They're looking at social issues, like domestic abuse in old Scots songs. I really want them to learn to perform music that's relevant to the wider world and really speaks to people, not just a good tune to dance to."

Composition is another core focus. Scottish piping undergraduate John Dew, from Perthshire, hopes to compose for TV and documentaries. Finishing his score for a piece in "celebration" of whisky, he says, "Composing allows you to explore a range of emotions, and studying here allows you to understand how best to conjure these emotions by understanding the instruments."

Like Hudock, professor Joshua Dickson, RCS's head of traditional music, first learned Scottish music in America,